

# 국힘, 공천 룰 마련 착수... 현역의원 물갈이 폭 관심

### 공관위, 내일 첫 회의...先수도권 後영남·교체비율 지역별 차등화 4년 전보다 공천 시계 빨라져...이르면 설 연휴 전 첫 결과 나올 듯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마련에 착수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관위 운영 로드맵을 설정한다.

공관위는 우선 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검토하고 앞서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 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는다.

공관위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면 여당의 이번 총선 의석수 목표와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총선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지역구별 공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천 심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여당의 '협지'인 수도권 지역구를 먼저 하고, 수도권 외 지역구는 그 다음에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공천 탈락자의 반발이 우려되는 '덧발' 영남권 공천 심사를 제일 마지막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 당직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박빙 지

역은 먼저 후보를 정해 선거전을 일찍 시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남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내고 전략공천 또는 단수공천, 경선 실시 지역 등을 정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월 23일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약 20일 후 서울 일부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현역 의원 첫 컷오프도 단행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공관위 가동이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선거일도 21대 총선(4월 15일)보

다 5일 빠른 만큼, 공천 시계는 4년 전보다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관위 결정 사항 중 주목되는 것은 단연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22.5%) 컷오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혁신위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을 20% 플러스알파(+)로 설정한 것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통한 50% 이상 교체' 목표를 세웠다. 당시 현역 124명 중 54명이 불출마, 컷오프, 경선 패배 등으로 공천장을 받지 못해 최종 교체율은 43.5%였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은 당시 현역 의원 20명 중 5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7명이 컷오프당해 물갈이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관위 공천 심사와 결과 발표가 이어지면 장제원·김종원 의원 외에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현역 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16차 고위당·정협의



한동훈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한동훈 "정부, 대학생 학비 획기적 경감책 내달라"

### 취임 첫 고위 당정대협의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정책을 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다.

한 위원장은 "우리당은 교통, 안전, 문화, 경제 등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결국 그제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슬한 격차들의 해소를 위해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 한다"

며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당을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우리 국민께서, 동료 시민들께서 그 차이를 즉각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자"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만든다

### 정의, 당대회서 가결...녹색당, 18~22일 찬반 당원 총투표

정의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14일 결정했다.

녹색당의 경우 18~22일 선거연합정당 추진 여부를 당원 총투표에 부친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당 대회에서 선거연합정당 추진 승인의 건을 재석대 의원 195명 중 13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의당은 22~25일 나흘간 당원 총투표를 진행해 선거연합정당 당명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할지 의견을 묻기로 했다. 선거연합정당 공동대표 중 정의당 대표를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데 대한 찬반 역시 총투표로 결정한다.

이날 당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선거연합정당 추진에 당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지적, 녹색당 외 다른 진보 정당과의 연대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당은 자당을 플랫폼으로 한 4개 진보 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당과 진보당 내 이견이 있어 일단 '개분발차' 형식으로 두 정당만으로 우선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정진욱 "남구, 돌봄·명품교육특구 지정 추진"

###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출마를 준비중인 정진욱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릴 만큼 학부모 교육열이 높은 남구를 글로벌 명품교육특구로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 관련 공약 5개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남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시, 시교육청, 남구청과 협력해 '지역 중심 돌봄·교육형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대학 입시에 대해 "찾아가는 남구 교육포럼"을 운영해 남구 학생들의 입시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울대 등 대학 입학사정관 및 수능 전문가, 진로·직업교육 분석 전문가 등을 초빙해 남



구 학생을 위한 입시 전략·설명회,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노후시설 개선 ▲주월동 옛 광주과학고 부지에 생기는 소프트웨어 미래교육 광주센터에 남구 학생을 위한 특화 'SI(인공지능) 기반 학생맞춤형학습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학부모들의 열성과 바람을 모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은 지역 정치인의 의무"라며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돌봄·교육 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사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